

추석 명절이 더 바쁜 사람들

“주문 쏟아져 실 틈 없어요”

“반도체용 인쇄회로 기판(PCB·Printed Circuit Board) 372만개를 검사하다.”

추석 연휴 광주시 북구 대촌동 테크노파크 내 ‘달마전자’ 공장 직원 160명에게 떨어진 특별명이다.

이 회사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 광주공장에 필요한 PCB 물량의 절반을 납품하는데, 쏟아져 들어오는 주문 때문에 추석 연휴에도 공장을 할 수가 없다. 더욱이 PCB는 반도체에 있는 정보를 전자제품의 메인보드(main board)와 주고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핵심 부품. 불량 PCB가 연결되면 핸드폰은 전화 통화가 되지 않고, 컴퓨터는 작동 중 폭발할 수도 있는 등 전자제품을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진도가 고향인 자동화 검사기기 담당 조영식(26)씨는 이미 굴비와 고기를 사서 부모님께 보내드렸다.

“회사가 잘나가야 종업원들도 잘 나가죠. 고향 친구들도 보고 싶지만, 열심히 일해서 특근 수당도 따 겁니다.”

달마전자는 연휴 4일 동안 230여 명의 직원 중 조식을 포함한 160여 명을 2교대로 투입해 372만개의 PCB 검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달마전자 이용재(32) 차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특근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자동화 검사 라인에서 현미경으

테크노파크 ‘달마전자’ 직원들

특근하며 PCB 372만개 검사



광주시 북구 대촌동 테크노파크 내 ‘달마전자’ 직원들이 추석연휴 전날인 21일 자동화 검사라인에서 불량 PCB를 골라내기 위해 모니터와 현미경으로 지켜보고 있다.

로 PCB를 지켜보던 김현정(여·35)씨는 “명절에 쉬지 못해도 회사가 잘나가니 괜찮다”며 활짝 웃었다. 박순화(여·20)씨는 “부모님에게 용돈과 옷을 선물로 보내드리며 죄송하던 마음을 대신했다”고 말했다.

2004년 설립된 달마전자는 2005년 18억, 2006년 42억원 등 해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매출 목표는

70억원. 제2공장 설립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PCB 검사뿐 아니라 전기검사 등 사업영역도 확대하고 있다.

“통달할 때까지 갈고 닦는다”는 뜻의 달마(達磨)란 회사 이름처럼 최고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추석을 맞는 달마전자 직원들의 각오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고향의 情까지 안내 하죠”

‘코이드’ 114 전화 상담원들

1인당 하루 1천300여 콜 소화

찾을 사람도 찾는 사람도 많아진 추석. ‘별초 대행업체를 알려달라’는 전화에서부터 ‘갈 곳도 없는데 이야기라도 들려달라’는 부탁까지... 114안내 전화 상담원들의 추석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지난 20일 오후 광주시 북구 신안동 코이드(koid) 전남본부 정보 안내부 사무실. 도서편취 칸막이로 나뉜 작은 책상 위에는 모니터와 키보드, 마이크가 붙은 헤드셋만 놓여있다. 이런 작지만 250여 개, 밤 10시 이후 114안내를 담당하는 재택근무자까지 포함하면 312명의 여성 상담원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민이 주고객인 코이드 전남본부에는 최근 하루 평균 26만건의 상담전화가 걸려온다. 추석 당일 하루는 평소보다 1.3배나 늘었다. 1인당 하루 1천300여 콜을 소화하고 있는 셈이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114 덕을 많이 봤어요”

8년 경력의 김숙정(37) 팀장은 최근 고희의 한 김 가공공장 사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평소처럼 안내만 했을 뿐인데 사장은 “상담원들의 도움으로 주문이 늘었다”며 연거꾸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커리어, 떡집 등의 문의전화가 급증했다”며 “별초와 제사대행업체 변호를 묻는 고객들이 많아 진 것을 보면 달마전 명절 세태까지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루에도 1천 번 이상 사랑을 전하는 114상담원. 광주시 북구 신안동 코이드(koid) 전남본부 사무실에서 상담원들이 하트를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또한 많아졌다.고보연(28) 대리는 황설희씨를 취객들의 전화 등의 까다로운 상담을 주로 맡고 있는데, 추석에도 갈 곳이 없는 이들의 하소연이 늘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전화를 먼저 끊는 법은 없다.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도 자주 걸려온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이들이 옛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114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

이다. 그녀들이 ‘인생상담사’라고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인생상담사’들의 추석은 그저 평범한 하루일 뿐이다. 작년에 결혼한 새택 전현(27)씨는 이번 추석에도 해남 친정에 내려가기는 힘들다. 그러나 사택이 광주에 있어서 다행이지만 교대로 정해진 근무 때문에 음식장만 같은 일은 업무도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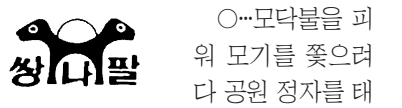
낸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침 (7315) 김종두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hemicals Corporation) products, including DS and KCC brands.

모기 쫓으려다 공원 정자 태워



○...모닥불을 피워 모기를 쫓으려다 공원 정자를 태운 중학생 5명이 경찰에 입건.

○...광주 북부경찰청은 21일 공원 내 나무정자 위에서 모닥불을 피워 정자를 훼손한 A군(14·중2) 등 중학생 5명을 실화혐의 등으로 불합야 조사 중.

○...A군 등은 이날 새벽 4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우암동 어울림 공원 내 정자에서 ‘모기가 문다’며 화장을 피워, 나무 등을 모아 불을 피우다 나무로 된 정자 바닥(가로 1m·세로 1m20cm)을 태운 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불잡힌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모기가 너무 많은데다 추워서 불을 피웠고, 금방 꺼려고 했던 것이 크게 번졌다”면서 선처를 호소.

/이종필기자 golee@kwangju.co.kr

초등생 등 49명 벌에 쏘여 ‘악’

함평서 현장학습 하다...15명은 병원 이송 치료

현장학습을 나온 초등학생과 인솔교사 등 49명이 꽃무릇 관람을 하다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영광소방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55분께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에서 꽃무릇 관람을 하던 초등학생이 벌집을 건드리면서 광모(9·광주시 남구 월산동) 등 15명이 벌에 쏘여 병원

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34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날 용천사에는 광주 남구 B초등학교 2학년 200명과 함평군 대동면 D초등학교 전교생 180명이 현장학습을 나왔다가 이같은 벌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9시께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에서 벌초를 하던 이

모(85)씨가 벌에 쏘여 숨지는 등 9월에만 4명이 ‘벌쏘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9월 들어 광주·전남소방본부에 접수된 ‘벌쏘임 사고’환자 이송 건수는 ▲광주 8건 ▲전남 118건, 벌집 제거 출동은 ▲광주 182건 ▲전남 492건으로 예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축구대회 참가 초등생 코치에 폭행당해 부상

축구대회에 참가한 초등학생이 코치에게 폭행당해 광대뼈에 금이가는 부상을 당했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 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축구부원 A(12)군이 이날 초 중남 부여에서 열린 초등부 축구대회에 참석했다가 코치 B(20)씨에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광대뼈에 금이 가는 목포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고교생이 차 운전 사고

무단횡단하던 여고생 사망

무단횡단을 하던 여고생이 다른 고등학생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21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운전저수지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기모(16·K고 2년)양이 한모(19·S고 3년)군이 몰던 엘란트라 승용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한군은 이날 선배에게 빌린 승용차를 몰고 금호구에서 운전사거리 방

향으로 운행 중 무단횡단을 하던 기모양을 발견했으나 미처 멈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은 한군과 기모양이 서로 멈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더 빨리 달린 것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한군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various medical clinics and services, including eye care, ENT, and general medicine.

Advertisement for a medical center offering various specialties like ophthalmology, dermatology, and internal medicine.

Advertisement for a medical center specializing in internal medicine and general practice.

Advertisement for a medical center offering a wide range of medical services.

Advertisement for a medical center providing various medical treatment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a medical center focusing on various medical specialties.